

시설원예농가에 화분매개벌 공급

농진청, 민간·지자체와 연계 수급 파악·물량 알선 등 진행

꽃가루받이(수분)에 꿀벌을 주로 사용하는 시설원에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매개벌 공급과 안정적인 열매 달림(착과)을 위한 현장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지난해 겨울 발생한 꿀벌 집단(분군) 소실·폐사로 꿀벌 구입에 차질이 생긴 시설원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자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화분매개벌 수급 파악과 물량 알선, 현장 지원

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도(道)농업기술원과 과채류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화분매개벌 수요를 조사한 결과, 15개 시·군 156농가(수요량: 1,276통)에서 화분매개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화분매개꿀벌 생산자협의회, 뒤영벌협의회에 속한 22개 업체에서 6,230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량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지난달 28일 기준) 화분매개벌 알선을 통해 60농가에 580여 통을 공급했다. 화분매개벌 수요가 높은 전북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했으며, 5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박·참외 같은 시설과 채류 작물의 안정적인 열매 달림을 위해 온실 환경 관리, 화분매개벌을 활용한 수정 관리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작물별 맞춤형 화분매개벌 이용기술을 개발·보급하

고, 화분매개꿀벌의 수명연장을 위한 먹이 관리와 농약을 살포 할 때 봉군 관리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개화기 시설과 채류의 안정 착과를 위한 온실·시설 하우스 환경 관리와 인공수분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화분매개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과채류의 안정 생산을 위한 농가 기술지도 강화와 현장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바이오진흥원, 1기

식품 품질관리자 양성 교육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3일부터 식품 품질관리자 양성 과정 1기 교육 발대식을 갖고 오는 6월 18일까지 진행되는 6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2022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우수인재의 역량강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도내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품질관리자, 분석기기 운영자, 생산공정관리자 등 식품기업의 필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이 운영된다.

또한, 식품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식품 품질 위생, 식품 안전 생산 관리 등 전 직종에 대한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식품 법규, 품질인증, 분석 및 생산장비, 기업현장실습, 취업캠프 등 예비취업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기업 및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현재 각 과정별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생산공정관리자 양성과정은 오는 6월 7일부터, 식품 품질관리자 2기 및 시험분석운영자 양성과정은 7월 1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진흥원 홈페이지(www.jitr.or.kr)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담당자(063-210-65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유통교육원

판매전략 교육생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국내 농식품 기업의 매출목표 및 영업계획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판매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실습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농식품 업계는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매출목표와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피드백하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다양한 영업환경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모델 실습과 마케팅 사례 강의 등을 통해, 농식품 기업들이 실제 판매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인 매출목표를 수립하고 영업계획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내용은 ▲농식품 기업 영업환경 이해 ▲영업목표 수립 및 영업활동 관리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액셀 활용 영업결과 분석 ▲분석결과 실행 등으로 구성되며,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현장 적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과정은 12~13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시 소재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인원은 25명으로 농식품 관련업체 종사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cat.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며, 문의사항은 교육운영부(031-400-3526, 3534)를 통해 답변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2일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박병홍 농촌진흥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판로개척 및 기술성장지원을 위한 농촌진흥청과 한국MD협회의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 기초·심화 교육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를 통과해 지난 3월에 선정된 신규 지정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교육으로 기초·심화 교육을 지난달 28~29일 양일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창출해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전라북도 마을기업은 현재까지 112개소가 지정됐으며, 일자리창출과 전년도 총 200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

고 있다.

신규 교육은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참여하는 기초 교육(7시간)과 회원 70%이상(총 회원수가 15인 이상인 경우는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심화 교육(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필수 교육이며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6개 시·군, 7개소 공동체가 참여하며, 기초교육 38명과 심화교육 61명이 이탈 없이 모두 교육수료증을 이수했으며, 마을기업의 공동체 관리 기업경영 행정절차 및 우수사례 등

을 통한 신규 마을기업간의 네트워크, 온라인 마케팅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인 경진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교육·각종 홍보 및 판로지원을 받게 된다.

경진원 이현용 원장은 "이번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주민들의 소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마을기업으로 존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문의는 경진원 자치경제팀 063)711-2114, 2116, 2119, 2122, 21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모터스포츠 팬 모두가 즐기는 축제 'Coming Soon'

현대차, N 페스티벌 개최

6~8일 개막 8개월간 진행

국내 모터스포츠 팬 모두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찾아온다.

현대자동차는 3일 국내 최대 규모 웹메이크 레이스 대회 현대 N 페스티벌(Hyundai N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 N 페스티벌'은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 차량을 활용해 참가 선수와 팬 모두 모터스포츠 문화를 즐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현대 N 페스티벌'은 개막 첫해를 제외하고 지난 해까지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3년 만에 관중 입장이 가능한 모터스포츠에 목마른 국내 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N 페스티벌'은 5월 8일(금)부터 8일(일)까지 인제 스피드웨이(강원도 인제군 소재)에서 진행되는 1라운드로 시작으로 시즌의 서막을 울려 10월까지 총 7라운드의 레이스에 약 150여 대의 차량이 출



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번엔 N 차량으로 참가 가능한 최상위 프로 클래스 '이번엔 N 컵(AVANTE N Cup)'이 새롭게 추가돼 기존 레이스와 함께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TV 중계를 비롯해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현대 N 페스티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고객들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 N 페스티벌'과 관련된 자세한

한 사항은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현대 N 페스티벌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팀 바덴베르크(Till Wartenberg) N 브랜드 매니저먼트 모터스포츠 사업부장은 "현대차는 더 많은 고객들이 모터스포츠를 쉽게 접근하고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현대 N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다"며 "3년 만에 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올해 행사를 통해 모터스포츠의 재미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이 3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신농업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업인 조합원 대변인 역할 최선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 경제문화공헌대상 수상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이 3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신농업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원철 조합장은 위기를 기회로 발판삼아 발로 뛰는 현장형 리더십을 통해 전라북도 농업·농촌과 농협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지난 1998년 3월 취임 이후 구조개선 대상인 동진농협, 백산농협을 흡수합병하면서 10년에 걸친 경영정착화 계획을 6년 만에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줘 농협 내부 명실상부한 합병농협의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생산기반 확충과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벼 공동육묘장 사업, 무인헬기공동방제사업, 농기계은행사업 등을 펼쳐 5,400여 명의 조합원 실익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추진으로 온라인 사업 부문에 진출했고 스마트팜 딸기직판관을 육성해 지난 3월 캄보디아에 첫 수출하는 등 유통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 장학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사랑나눔 바자회 등 조합원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해 세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동세탁방을 이용한 세탁봉사 활동도 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원철 조합장은 "오늘날 저의 활동 기반은 조합원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서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농업인 조합원의 지력을 믿고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비대면 화상경매시스템 구축

정읍가축시장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인)이 운영하는 정읍가축시장에 스마트폰으로 거래 가능한 비대면 화상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3일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전북농협은 '가축시장 비대면 화상경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북도와 시군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9개소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읍, 임실, 정읍 등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안으로 순창과 익산에 적용하고 그 외 가축시장에 대해서도 연내 100% 구축을 목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농협경제지주에서는 '가축시장'이라는 인터넷 앱(플랫폼)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축협 가축시장에 인터넷 방송 설비와 경매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매도인파매수인은 가축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매할 참



어 ▲경매실황 관전 ▲경매결과 안내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화상경매가 활성화되면 가축시장 방문자 수를 최소화해 코로나19, 구제역 등 각종 질병 확산 예방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우리 지역 가축시장에 ICT를 도입하여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리며, 전북농협은 지자체와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스마트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플랫폼서 대면·비대면 금융 교육 체험

전은, 기린중 1학년 대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 최초 금융에듀테인먼트인 JB플랫폼에서 전주 기린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3일 양일간 대면 및 비대면 금융 교육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어급과 영업부견학 등 은행대면업무와 스마트 오피스에서 교구를 활용한 보드게임, JB플랫폼 디지털 금융교육 체험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졌으며 모든 미션을 성공한 학생들은 JB금융미스타로 등록했다. 체험에 참여한 기린중 국민경 학생은 "우리지역 대표 은행인 전북은행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디지털 금융 교육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친절한 마스터분들 덕분에 쉽게 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



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도내 청소년들이 참여형 디지털 금융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안목 기르고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B플랫폼 체험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팀, 1팀당 15명씩(총 30명) 운영된다. /김윤상 기자